

## 바이오 파워스톤(신제품)을 내면서

김준일 ·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 부회장 · (주)영부바이오세라믹 대표이사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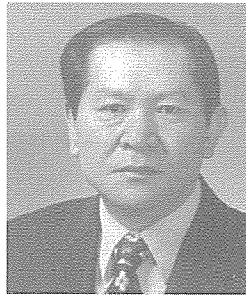
그동안 원적외선 방사소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착안하여 무수한 상품들이 속출되어 줄기찬 시장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특정 논리에 따라 건강 관련 응용부분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최근 빠른 템포로 늘어나는 원적외선 체험방을 보면서 한때 전국적으로 노래방 늘어나듯 확산되었던 찜질방에 응용되는 소재나 불합리한 공법을 놓고 올바른 이해와 인식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시장의 수명에 남달리 우려를 하였던바가 있다. 그 안목은 예외없이 적중하였다고 본다.

지난날의 실패요인과 문제해결은 덮어두고라도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관망하여 왔다. 실상 혼란스럽기까지한 면면을 직시 할때 재재되어 있는 모순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피한다해도 더이상의 혼선이 가중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조심스런 생각이다.

원적외선 체험장에 응용되고 있는 소재가 대부분 자연산 광석으로 천연광석이 가열될때 각종 유해성 가스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여 매우 위험스런 발상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원적외선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월간세라믹 4월호 백우현 교수님의 기고문의 한부분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절대 공감한다.

평소 바이오 세라믹 원료 생산으로 주력해 오던차에 원적외선 체험방의 꽃이라고 볼수있는 성형물을 순수 바이오세라믹원료에 의해 개발 선보이게 된것이 "바이오 파워스톤"이다.



### 요약컨데

1. 바이오세라믹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수종의 원료로 조성된 합성소재인 반면 천연광석은 재질이 단미라는 점이다.
2. 바이오 세라믹은 기능 자체가 다기능에 반해 한가지 재질로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3. 특정공정을 통해 중금속 및 불순물을 제거 시킨 소재에 반해 천연상태의 비가공에서 오

는 제반 차이점이다.

4. 현재 일반적으로 800°C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비해 본 제품은 1,300°C이상에서 고온처리된 제품으로 크랙방지등을 고려하여 보원된 제품이며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 원적외선 방사소재의 특징은 다공질의 소재인데 반해 천연석은 고온에서 소결시 기공이 파괴되는 단점으로 탈취력에서 이상치로 볼수없다.

모든 분야에 근원은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당한 응용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그 정도 여하에 따라 성패도 갈음될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질의 선택과 제반 요건에 맞춘 응용의 합리화다.

따라서 원적외선 체험방에 생명체라고 할수 있는 성형물의 응용소재를 합성개념으로 착안하였다. 특히 인체와 관련 다기능에 대한 기대효과를 겨냥하였다고 본다. 원가면도 고려 성형물의 구조 자체도 합당하게 착안 제작하였다.

끝으로 고액투자자의 부담을 안고 이 분야에 동반하는 사업주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일조에 동반자로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램이 더욱 앞선다.